

재단법인 유한재단
(828 - 0298)

2024. 1. 25

유재제2024-1호

수 신 : 총장

참 조 : 대학원장(일반), 장학담당

제 목 : 2024학년도 유일한 장학생(대학원생) 추천 의뢰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재단은 유한양행 창설자 고 유일한 박사에 의하여 1970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 교육사업지원,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본 재단에서는 그동안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올해부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생활비 장학금)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4. 대학원 재학생(특수대학원 제외)중 학업능력은 우수하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재단에 2024년 2월 23일(서류도착 기준)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15일 까지 선정여부 통보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추천인원 : 총 3명(단, ①인문, 사회, 경영계열, ②자연(생명과학 제외), 공학계열, ③의학, 약학, 생명과학 중 각 1명)
2. 장학금액 : ₩5,000,000 / 1학기당(두학기 ₩10,000,000지급, 휴학 등 사고시 제외)
3. 장학기간 : 2024학년도 1년간
4. 추 천 자 : 대학원장 또는 논문지도교수
5. 추천기준 : 추천서, 자기 학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6. 장학증서 수여식 : 2024년 4월 5일(금요일) 오전 11시(본인 참석 적극 권장)
7. 제출서류 : 별첨(장학생 추천서, 학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학교통장 사본

별첨 : 1. 유일한 장학금 취지문

2. 장학생 추천서, 학업계획서(유한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3. 개인정보 동의서. 끝.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

재단법인 유한재단

이사장 김 중 수



「유일한 장학금」 취지문: “유일한 정신” 확산에 동참하실 분을 모십니다.

유한재단에서는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취지는 유한양행의 설립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 즉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조와 국가 발전의 핵심이 교육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한 세기 전 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을 세운 선각자이며, 개인적으로는 청렴과 정의를 기본 생활 원칙으로 삼으면서,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는 조국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국가 지도자로서도 헌신하신 분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사회이고 그 종사자는 단지 기업을 관리하는 것뿐이라는 철학도 지니셨습니다. 혈연 친족을 회사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업 승계를 일찍이 포기하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 상장으로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는 등 근대적 기업지배구조 정립의 효시를 보이셨습니다. 창익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윤추구와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통상적 기업가정신을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의 책무를 기업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박사의 기업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1904년 9세의 어린 나이에 홀로 도미하여, 소년 성장기를 선교사 집에서 생활해오면서 “근면, 절약, 성실”의 기독교적 생활 철학을 몸에 익혔습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고학으로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상학(commerce)을 전공한 후, 졸업 직후 식료품 회사를 설립하여 탁월한 경영수완을 발휘함으로써 젊은 기업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인 총대표 회의”에서 이승만·서재필 박사 등과 같은 국가지도자들과 함께 결의문 작성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 직후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귀국하여, 국민이 건강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1926년에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1941년 말에는 유한양행 사장직을 사임하고, 50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미국 정보국 OSS (CIA 전신)의 고문으로서 “한인 국방 경위대”를 편성하여 미국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런 정보활동에 대한 비밀사항이 사후에 공개되어 사안이 밝혀짐에 따라,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우리나라 해방 직후 초대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여 기업 지도자로서도 활동하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의 이념은 "국가, 교육,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의 4분야로 축약될 수 있으며,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제 치하 당시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① 국가를 최우선 이념으로 삼으면서, 국가 발전에 헌신하여야 하며, 이는 국가가 건실하게 작동하여야 국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절실한 호소로 해석됩니다.

② 교육 기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올바르게 키워야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③ 기업을 강조한 이유는 한 나라의 번성은 기업활동이 왕성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으로써, 지금부터 무려 한세기전, 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미국에서의 기업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유한양행을 설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④ 기업이이익의 사회 환원은 공익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지금에 이르러서야 우리 사회에 풍미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미 갈파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래전의 우리나라 사회여건에서 형성되었던, "유일한 정신"의 네 가지 요소를 현재의 사회경제 환경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반세기 전의 제반 사회환경과 비교할 때, 이제는 이미 선진국 형태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회공동체의 화합과 번성에 헌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지금은 교육 기관이 양적으로는 충분하게 설립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의 질적 내용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중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즉 남을 배려하는 공공 의식(public mind)을 함양함으로써 지나친 개인 중심적(egocentric)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나라 번성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므로 이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시대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ESG(환경적·사회적·지배구조)나 CSR(기업의 사회적 책무) 등에 관련된 국제적 규범에 상응하도록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지구환경을 살리고 부의 불평등문제 해결에 기업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넷째,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판단되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봉사활동의 창달에 기업이 앞장서나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재단은 "유일한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의 정신적 초석으로 인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장학사업, 봉사활동, 복지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낙오되고 소외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전에 선구자적 혜안을 갖고 설립한 본 유한재단의 사회 헌신적 활동 범위를 가일층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금번에 "유일한 장학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유한장학금"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설되는 "유일한 장학금"은 석·박사 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대학원장 또는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유일한 정신의 기풍이 사회 저변에 더욱 확산하여, 우리 사회에 약자를 돕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행복한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자 하니, 이에 합당한 대학원생이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유한재단 이사장 김중수